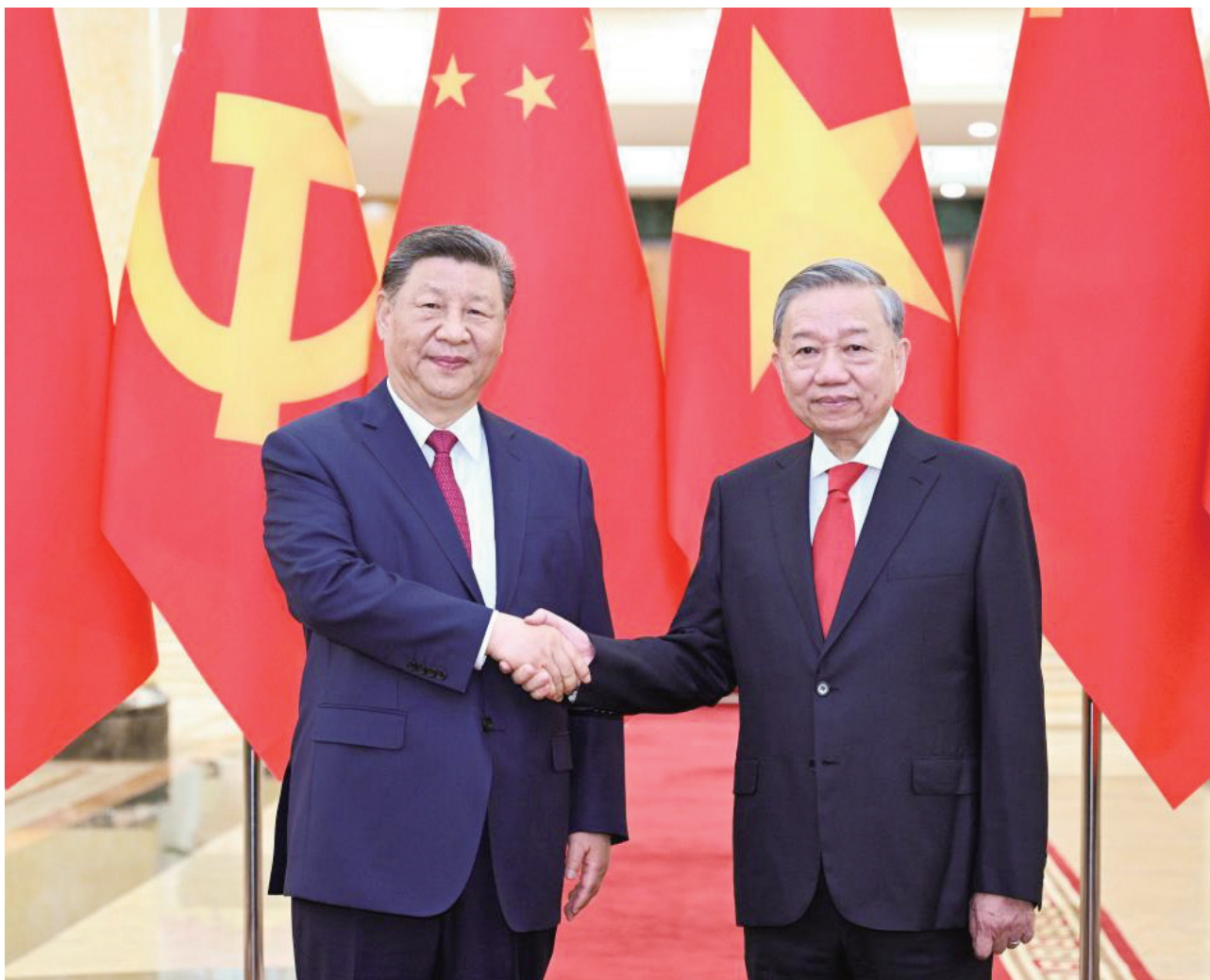




습근평, 웰남공산당중앙 총서기 또 럽과 회담



4월 14일 오후,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은 웰남공산당중앙 당사에서 웰남공산당중앙 총서기 또 럽과 회담을 거행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웰남에 대한 국빈방문을 진행하고 또 럽 총서기와 첫번째 상호 방문을 실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올해는 웰남공산당 창립 95주년, 웰남 건국 80주년과 남방해방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나는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웰남측에 열렬한 축하를 전하는 바이다. 중국측은 웰남이 자국의 국정에 부합되는 사회주의길로 나아가고 2026년 웰남공산당 14차 대회가 승리적으로 소집되고 창당, 건국 '두가지 백년' 분투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을 항상 지지할 것이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올해는 중국-웰남 수교 75주년 및 '중국-웰남 인문교류의 해'이다. 75년래, 국제풍운이 어떻게 변화하든 쌍방은 국가독립과 민족해방을 쟁취하는 투쟁에서 서로 지지해왔고 사회주의건설사업에서 손잡고 어깨 나란히 전진하고 각자의 현대화 행정에서 격려정진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 단결협력의 모범으로 되었다. 변화와 혼란이 뒤엉킨 국제정세에 직면하여 중국-웰남 양국은 평화적 발전을 견지하고 친선협력을 심화하면서 세계에 귀중한 안정성과 확정성을 가져다주었다. 새로운 력사의 시작점에서 쌍방은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손잡고 나아가면서 '웰남과 중국은 정이 두텁고 동지이자 형제'라는 전통적 친선을 이어가야 한다. 정치적 상호 신임을 더욱 높이고 안전협력을 더욱 실속 있게 하며 실무협력을 더욱 깊이있게 하고 민심의 토대를 더욱 다지며 다자간 협력과 배합을 더욱 밀접히 하고 분쟁에 대한 관리통제와 해결을 더욱 잘하는 '여섯가지 더욱'의 총체적 목표에 따라 전면적 전략 협력을 고품질로 추진하여 중국-웰남 운명공동체 건설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해 더욱 큰 새로운 공헌을 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웰남 운명공동체 건설은 중요한 세계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양국은 손잡고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15억이 넘는 인구가 함께 현대화로 매진하는 것은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을 유력하게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양국은 모두 대외개방을 견지하여 지역 산업체인, 공급체인의 안정과 원활함을 수호함으로써 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작은 배는 큰 파도를 이겨낼 수 없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중국과 웰남은 모두 경제 글로벌화의 수혜자이다. 전략적 정력을 증강하고 일방적인 패권 행위를 공동으로 반대하여 글로벌 자유무역체제와 산업체인, 공급체인의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습근평은 중국-웰남 운명공동체 건설 심화와 관련해 6가지 조치를 제기했다.

첫째, 높은 수준의 전략적 상호 신임을 증진해야 한다. 럽당, 럽국 지도자는 친척방문을 하듯 자주 왕래하고 자주 교류해야 한다. 쌍방은 정당간, 립법기구, 정치협상기구 등 경로의 역할을 잘 발휘시켜 국정운영 경험교류를 심화함으로써 국가 현대화를 추진하는 당의 지도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더욱 확고한 안전 장벽을 구축해야 한다. 럽국의 외교, 국방, 공안 '3+3' 전략적 대화 기제를 부장급으로 확정하고 전략적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국방사무와 집법 안전 협력 기제의 역할을 잘 발휘시키고 인터넷 도박, 전신사기 등 다국적 범죄를 단호히 타격해야 한다. 럽자 및 다자 특히 랑강강-메콩강 협력 기틀내에서의 집법사법 협력을 강화하여 인민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과 지역 안전 및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셋째, 더욱 높은 질의 호혜협력을 확장해야 한다. 중국의 신질생산력과 웰남의 신행 생산력이 다그쳐 형성되는 중대한 기회를 파악하고 럽국 실무적 협력의 품질 향상과 격상을 추동해야 한다. 쌍방의 표준제도절도, 고속도로, 스마트 통상구의 전면적 연결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의 초대 규모 시장은 시종 웰남을 향해 열려있는데 웰남의 더욱 많은 훌륭한 제품이 중국에 수출되는 것을 환영한다. 중국측은 웰남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를 격려하는바 웰남측이 더욱 공정하고 친선적인 경영환경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

넷째, 더욱 광범한 민심의 뉴대를 다져야 한다. 올해의 '중국-웰

남 인문교류의 해'를 계기로 대중적이고 민심을 얻는 더욱 많은 친선활동을 개최하고 관광, 문화, 언론, 위생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계속 홍색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친선의 이야기를 많이 잘해야 한다. 향후 3년간 웰남 청년들을 중국에 초청, '홍색연학 려행'을 전개하여 럽국 인민 특히 청년일대로 하여금 홍색강산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며 럽국의 선린우호 협력은 더없이 귀중한을 알게 함으로써 중국-웰남 관계 발전과 각자 국가 건설을 위해 더욱 많은 유생력량을 육성해야 한다.

다섯째, 더욱 긴밀한 다자협력을 전개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승리의 과실을 함께 수호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을 토대로 하는 국제질서를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 포괄협력, 포용의 경제 글로벌화를 추동하고 3대 글로벌 창의를 기틀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친화, 성실, 혜택, 포용의 리념과 립국과의 선린관계, 동반자관계의 방침을 견지하고 주변 국가와의 친선협력을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의 성과가 주변에 더욱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할 것이다.

여섯째, 더욱 공격적인 해상 상호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 럽국 지도자의 공강대를 실제적으로 시달하고 해상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며 해상협력을 확대하고 결심을 내려 공동 개발을 가동함으로써 '남해행위준칙'의 조속한 달성을 추동해야 한다.

또 럽은 습근평 총서기, 국가주석이 럽국 수교 75주년에 즈음하여 웰남을 국빈방문한 데 대해 열렬한 환영을 표했다. 또 럽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인민의 결출한 령수이며 웰남인민의 위대한 친구이다. 습근평 총서기가 올해 첫 출국 방문지로 웰남을 선택했는데 이는 웰남-중국 관계에 대한 중시와 웰남에 대한 지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방문은 반드시 럽당, 럽국 친선왕래 력사의 새로운 리정표로 될 것이며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는 럽국의 운명공동체 건설이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하게 될 것이다.

또 럽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습근평 총서기의 확고한 령도 아래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업이 력사적 성과를 이룩하고 중국식 현대화가 전면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신질생산력이 다그

쳐 발전되었는데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다. 웰남측은 이에 대해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며 오랜 세월 동안 중국측이 웰남에 대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

또 럽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웰남과 중국은 모두 공산당이 령도하는 사회주의국가이다. 대 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웰남의 객관적 요구, 전략적 선택이자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웰남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시행하고 중국이 통일대업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하며 어떤 형식의 '대만독립' 분렬행위든 단호히 반대한다. 웰남-중국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은 럽국 인민의 근본적인 리익에 부합되고 시대의 조류에 부합된다. 웰남측은 중국측과 함께 럽당, 럽국의 고위층 왕래를 밀접히 하고 국정운영 경험교류를 강화하며 전략적 안전협력을 증진하고 정치적 상호 신임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기를 기대한다. 럽자 협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욱 많은 경제무역, 과학기술, 기반시설, 환경보호 등 분야의 협력 포인트를 조성하기를 기대한다. 인문교류를 촉진하고 지방, 청년간 교류를 추진하며 관광 협력을 강화하고 인민간의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 웰남측은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한 인류운명공동체 리념과 3개 글로벌 창의를 지지하며 중국공산당 주변사업회의에서 확정된 주변 국가와의 '5대 타전' 건설 청사진과 우호적인 이웃, 안전한 이웃, 부유한 이웃 방침을 높이 평가한다. 웰남측은 중국측과 함께 조화와 배합을 잘하고 다자주의를 견지하며 평화공존 5항 원칙을 견지하고 국제무역의 규칙을 수호할 것이며 쌍방이 체결한 협의를 준수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함께 더욱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 웰남측은 중국측과 타당하게 해상 분쟁을 해결하고 해상 안정을 수호할 용의가 있다.

회담전, 또 럽은 습근평을 초청해 소범위 다파모임을 진행했다. 럽당 총서기는 당과 국가를 다스리는 리념에 대해 교류를 진행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 건설은 당과 국가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되며 당작품은 민심의 향배에 관계된다. 중공중앙은 올해 전당적으로 중앙 8항 규정 정신 심입 관철 학습교양을 전개하여 작풍 건설의 새로운 성과와 효과로 가일층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유력한 보장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럽당 총서기는 교류와 상호 학습을 강화하고 함께 사회주의길을 잘 걸어나가는 데 일치하게 합의했다.

회담후, 럽당 총서기는 중국-웰남 쌍방이 체결하는 45부의 럽자 협력문서 전시를 공동으로 지켜보았다. 그중에는 상련상통, 인공지능, 세관 검사검역, 농산물무역, 문화와 체육, 민생, 인력자원개발, 언론 등 분야가 망라되었다.

쌍방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전략적 의의를 지니는 중국-웰남 운명공동체를 다그쳐 구축할 데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웰남사회주의공화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저녁, 웰남공산당중앙 총서기 또 럽, 웰남 국가주석 르영 2인이 공동으로 습근평을 위해 환영연회를 마련했다. 웰남공산당중앙 정치국 위원, 서기처 서기 등 지도자 동지 전체가 동반하여 참석했다.

채기, 왕의, 왕소흥 등이 상기 행사에 참가했다.

/ 신화사

길림 입쌀 · 선식옥수수 공용 브랜드 광고문구 발표, 금빛명함 창출

4월 8일, 길림입쌀, 길림선식옥수수 품질 마케팅 선전활동 및 공용 브랜드 광고어 발표식이 장춘에서 있었다. 행사에서는 "천연적이고 품질 좋은 길림입쌀은 룝색이기 때문에 뛰어나다." (好在天然、贵在品质, 吉林大米因为绿色所以出色)와 "일대 금황, 하늘이 내린 선물, 길림선식옥수수가 여기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一带金黄、天赐之礼, 吉林鲜食玉米在这等你)라는 공용 브랜드 광고어를 혁신적으로 출범시켜 2025년 '길자호' 럽국 브랜드 건설의 서막을 열어놓았다. 이는 길림의 럽식 브랜드 건설이 '전반 사슬 협동과 브랜드 부능' (全链协同、品牌赋能)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표징한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활동은 '룝색안전 건강공유'를 주제로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와 정부의 사업회보를 청취할 때의 중요 연설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착하여 과학기술 농업, 룝색농업, 품질농업, 브랜드농업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산물의 정밀가공과 식품 정밀가공을 강화하며 '량두식미' (粮头食尾), '농두공미' (农头工尾) 문장을 충분히 활성화

하고 다원화된 식품 공급 체계를 구축하며 온·오프라인의 자원을 집중하여 길림입쌀과 길림선식옥수수의 브랜드 영향력을 제고하고 제품 가격과 판매량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새로운 광고어의 발표는 길림입쌀 생태망과 사슬 건설을 추진하고 길림 식량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길림 입쌀, 선식옥수수 품질 선전활동은 2개월 동안 지속되는데 근 100개에 달하는 길림 입쌀, 선식옥수수 련맹기업들이 동시에 참여하여 브랜드 선전, 마케팅 소개, 지역사회 단체구매, 전시판매, 생방송 판매 등 여러가지 마케팅 활동을 펼치게 된다. 국가 식량 안전의 중요한 중임을 떠맡길림성은 브랜드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밭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반 산업 생태망 사슬을 구축하여 길림입쌀의 '백금명함장'과 길림선식옥수수의 '황금명함장' 이룬 구동을 가속화하고 브랜드 건설 성과를 산업 발전의 실제적 효과로 전환시킬으로써 국가 '천억근 럽곡' 생산능력 건설 프로젝트에 강력한 동력에너지 주입하게 된다. / 인민일보

길림인삼, 중국국제소비품박람회서 각광



4월 13일, 제5회 중국국제소비품 박람회가 해남국제회의전시센터에서 성대히 개막된 가운데 71개 국가와 지역의 4,100여개 브랜드가 참여했다. 그 중 길림전시기구는 장백산인삼을 주제로 길림전시기구는 전통문화와 현대기술을 융합하여 인삼의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선보였다. 전시장에서는 야생 산삼이 눈에 띄었으며 관람객들은 장백산의 인삼 채취 코너를 통해 인삼 채취 풍습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박람회에 길림성에서는 도합 30개 기업이 참가했는데 인삼 가공 제품도 다양하게 전시되었다. 간단한 가공 제품부터 보건식품, 인삼술, 세제, 문화창의 제품까지 다양했는데 모든 제품들에 길림인삼산업의 활력이

응집되어있었다. 특히 훈춘화서인삼 업체가 전시한 가격이 66만 8,000원 되는 80년생 야생 산삼은 많은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삼계탕, 인삼음료, 인삼 맛 탕수육 등 시식 코너도 인기가 높았다. 한 관람객은 "인삼의 본연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쓴맛을 제거한 기술이 놀랍다."고 말하면서 만족감을 표했다.

길림성상무청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길림인삼이 국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인삼 문화를 깊이 발굴하고 혁신을 지속해 국제 무대에서 더 큰 빛을 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길림인삼의 우수성과 잠재력이 널리 알려지며 국제 시장에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길림일보



요즘 들어 연길 시내의 봄꽃들이 철을 맞아 활짝 피어났다. 며칠전 내린 봄비에 약속이나 한 듯 거리와 골목골목, 공원에 활짝 피어난 봄꽃들은 도시에 무한한 생기와 숨결을 더해준다. / 김파기자